

# 제315회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4월25일(목)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 1

(09시16분 개의)

○위원장 김진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시간이 좀 제약되어 있는 그런 사정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김진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회법 제57조에 따라서 정치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는 교섭단체 간사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총 여덟 분으로 하되 새누리당 4인, 민주통합당 3인, 진보정의당 1인으로 해서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은 본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인 제가 겸임하도록 간사 간 합의하였고 소위원회 위원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치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장과 소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곤 위원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위원회가 이 정치쇄신소위 하나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 다른 소위도 구성을 할 계획이신지?

○위원장 김진표 지난번에 간사들 간에 협의한 것은 작년에 국회쇄신평위를 운영을 해서 이미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정치쇄신평위라는 큰 틀 속에서도 국회쇄신 의제도 논의할 수 있으니까. 사실 평위를 운영하는 데 가장 애로점은 위원님들 출석정족수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위를 여러 개를 만들면 만들수록 그것이 더 어려워지니까 소위를 일단은 정치쇄신평위 하나로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서 만일 또 다른 수요가 생기고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지금 여야 간에 국회개헌평위를 별도의 평위를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쪽으로 양당 대표 간에 아마 의견이 접근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별론이 되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우리 정치쇄신평위에서 함께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가 대표들 간에 합의가 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소위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일단은 현재는 그렇게 정치쇄신평위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병호 위원 위원장님, 정치쇄신 하나로 소위를 하는 것도 뭐 적절합니다마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정치쇄신의 과제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논의하기 위해서는 소위를 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조금 더 치밀하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개혁소위, 예를 들어서요 정당개혁소위, 선거법개혁소위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주제를 잘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논의를 좀 심층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데요. 이렇게 이것 하나만 만들게 되면 또 조금은 심도 있는 논의가 좀 못 되지 않을까 그럴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함진규 위원님.

○함진규 위원 문병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는 반대의견을 좀 표하고 싶은데 우리 문병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저도 지난해 우리 새누리당 쇄신특위 간사를 좀 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하고 비슷한, 저희들도 앞으로 9월 달까지 한 5개월 정도 활동을 하는데, 그때 다섯 가지 안건을 채택해서 하면서 하나의 안건,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 등 이런 것은 손도 못 댔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쇄신특위에 오신 위원님들이 우리 문병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여러 분과를 두어서 심층적으로 다루고 위원회에서 다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김관영 위원님은 그래도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놓쳤던 것을 연속성 있게 가고 있는데 저는 새누리당에 꼭, 이번에 한 것에 뭐 참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이것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오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과에 소속돼서 각자 활발한 토론을 하고 대안을 모색해서 향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취합을 해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가야지, 한 소위만 두어 가지고는 생각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이 정치쇄신특위와 관련해서, 국민적 기대가 굉장히 큼니다. 그런데 또 특위가 그 기대는 크고 출범은 요란하지만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 하면 국민들이 크게 화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출범과 관련해서 이 회의에 참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위원들은 과감하게 위

원을 양보를 해서 정말 참석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과제가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제를 선정해야 되겠지만 과제를 다 지금 같이 의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100% 한다는 전제하에서 소위를 몇 등분으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이번 성공적인 정치쇄신특위의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표 예, 알겠습니다.

원혜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원혜영 위원 예. 지금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말씀 보충 지지발언하려고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많은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번 정치쇄신 특별위원회는 정말 특단의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정치, 정당을 국민에게 당겨 내느냐 못 하느냐, 그리고 또 외면당하는 정치, 폄하되는 정치의 권위와 책임을 회복하느냐 못 하느냐의 결정적인 어떤 제도적 기틀을 여기서 만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위원회야말로 아주 특별한 위원회로서 자임을 해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회의에 당분간, 회의가 위원회가 존속되고 활동하는 한 적어도 국회활동 관련 최우선 순위를 여기다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좀 이견 뭐라고 그럴까 강조하기 위해서 이채익 위원님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 한번 따져봐서 ‘아, 나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여기에 최우선 집중 못 하겠다’고 하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들을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만큼 절실한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각오가 전제된다면 정당개혁, 국회개혁, 선거제도개혁 등으로 나누어서, 여야 균형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세 싸움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과제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회 4인 위원회도 좋고 5인 위원회도 좋고, 그래서 좀 자유롭게 책임 있게 논의해서 심화된 논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올려서 아웃풋의 질과 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노근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노근 위원** 저도 여러, 원혜영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이 다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제가 너무 중차대하고, 또 아이템이 몇 개가 선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개 보면 대선 공약의 주류를 많이 이루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차 이것을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도 지나온 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하려면 적어도 2개든 3개든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 체제로 나누어서 심도 있게 하고, 여기에 참여할 여건이 어려운 분은 당초부터 이 자리를 스스로 내주면서 아주 중대한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적어도 2~3개의 분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전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제가 소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포함되어 있는지도…… 오늘 아침에 처음 왔습니다마는, 지금 정치쇄신평제심사소위원회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주제가 무엇인지, 안건이 무엇인지까지도 아직 확정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출범을 해서 이제 스스로 확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원회에서 먼저 뭐뭐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의결하는 그런 구도는 저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일단 구성해서 앞으로 뭘 다룰 것인지, 주제는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 예를 들어 우리 당과 또 민주당, 비교섭단체의 생각이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처음 시작을 해서 풀어 놓고 몇 개 위원회로 다루다 보면 통일성도 없고,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또 시간만 낭비하고 갑론을박하다가 아무런 성과를 못 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앞으로 다룰 주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이 주제가 방대하니 그러면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맡기자든지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소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조금 이 소위원회에서 먼저 적어도 구성하고 난 다음에, 안건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각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로 소위원회를 만들었다면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진표**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정치쇄신평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정치쇄신평위 당초 구성할 때 이 특위에서 좀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고자 했던 위원님들의 취지를 백분 살리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체로 여야 각 당의 소속 위원님들과 좀 컨센서스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위가 구성되고 또 소위 위원 명단이 좀 선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특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님께서 한번 소속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더 공유해 주시고, 또 소위를 단일 소위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한 2~3개의 과제를 더 나누어서 별도 소위로 구성할 것인지는 역시 또 양당 간사님께서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단일 소위로 갈 경우에도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른 특위 위원님들과 정보가 공유된 상태에서 의견이 같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예, 알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심상정 위원**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덧붙이는 격이 될 텐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유하고 계시지만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요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양치기 정치쇄신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다 제출이 된 것이고, 이제 의지를 모으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인 방향에 대한 전제 없이 이렇게 분과만 나누게 될 경우에 자칫 과편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정치쇄신평위에서 어디까지 범위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좀 확정 짓고 그 기조 속에서 필요하다면 분과를 분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진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릴 것은 우리 특위의 성과 있는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는 의지 표명을 해 주신 점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냐 이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회의를 지금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한 것은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오후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해서 좀 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논의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 났습니다, 전체회의를.

그래서 오늘 여야 간사 간에 이미 협의한 이 8인 소위원회를 일단 구성해서 그 소위원회에서, 우리 특위가 다루어야 할 의제들을 사실은 어제 전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여야 간에 논의되어 왔던 것 또 각당에서 발표했던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자료로 나누어 드렸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8인 소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논의해서, 월요일 날 소위를 열어서 거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치쇄신, 국회쇄신 또는 선거제도개선 이렇게 3개의 소위로 나누어서 할 것이냐, 그러면 각 소위에서는 어떤 것들을 논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화요일 날 본회의에서 본 특위의 운영 방향 전체에 관해서 확정을 짓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하루 여유를 더 주시면 지금 양당 간에, 위원님들 간에도 좀 충분히 논의가 아직 부족했던 것 같고 해서 위원님들이 일단은 전문위원실에서 나누어 드린 이 자료를 한번 숙독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발표됐거나 언론에 나온 것들은 다 집대성해 놓은 것입니다, 선거공약까지.

그것을 보시고 각당 위원들 간에 의견 수렴을 해서 그것을 월요일 날 소위원회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앞으로 소위를 세 개로 할 것이냐 두 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그 안을 화요일 날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쪽으로 위임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성곤 위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저희 특별위원회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 다루겠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이것을 다 매듭을 지어야

되는지 그 일정과 두 번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여기서 법안까지 해서 법안심사소위나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법안까지 다룰 수 있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여기서 해 가지고 다시 또 운영위원회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 또 여기 권한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과 권한에 대한 것을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지난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우리 특위의 설치안은 9월 30일까지 회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위는 시한이. 물론 양당 대표 간에 합의가 되면 다시 또 연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9월 30일까지이고, 그다음에 다른 특위와 마찬가지로 이 특위는 법안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회쇄신평위 운영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특위는 의결권이 없는 다른 특위와는 조금은 성격이 다른 것이 사실상 양당 원내대표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별도 특위의 역할을 하는 있는 셈입니다, 의제들이 전부 가.

그래서 지난번 국회쇄신평위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안에 대해서 특위 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쇄신평위의 합의된 내용은 10개 법안이 지금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어느 정도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채택해서 본회의로 넘기는, 그래서 표결을 거치는 그런 가능성이 다른 특위보다는 좀 높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여야 간사 간에 기왕에 협의했던 것이고, 오늘 또 여러 위원님들이 특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좋은 제안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 소위에서 이 소위를 한 2~3개로 나누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에 관해서, 그렇게 할 경우 각 소위원회에서는 어떤 의제들을 다룰 것이냐 하는 것들까지 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화요일 날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다 위임해 주시면 일단 오늘 제가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소위원회는 그것을 논의하는 소위원회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노근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지금 여기 대체로 공통적인 의견이 소위원회를 2

개를 두든 3개를 두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신 소위원회 이분들이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대전제가 2~3개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이템을 정한다든지 이것은 찬성합니다마는, 여기 주류가 대부분 나누자는 것인데……

○**위원장 김진표** 이렇게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하려면 아까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 말씀처럼 실제로는 각 소위를 2~3개를 둔다 할지라도 각 소위에서 뭘 도대체 다를 것인가는 일단 합의해서 정해 놓고 그다음 화요일 전체회의에서 그 소위를 그대로 구성하고, 그리고 그 소위에서 이런 의제도 추가해 달라, 이것은 빼 달라든가 이런 논의를 해야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또 너무 혼선을 겪게 되니까 그것은 위원장과 간사들께 좀 맡겨 주셨으면 저희가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특위의 기간과 권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토론회, 공청회 등 이런 절차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서 기간은 여야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보지만 권한 문제는 사실상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해서 합의된 부분이 법안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겠나, 오히려 더 실망만…… 구호만 요란하고 내실이 없는 쪽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하여튼 우리 특위의 의견을 여야 대표에게 분명히 전달해서 합의된 부분이 법안까지 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 부분은 꼭 위원장이 철저하게 여야 지도부에 이 뜻을 좀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표**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말만 요란하고 법안 형태로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돼서 지난번 국회쇄신위원회가 발의한 법안 10개를 첫 번째 소위원회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화요일 날 그것을 이번 4월 국회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결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의결권을 다시 가지려면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이 구성결의안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야 간사와 위원장께 맡겨 주시면 양당, 양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해야 결정될 문제니까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가급적 그렇게 됐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특위 위원 전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채택하는 것을 보장해 주면 그것이 바로 본회의로 연결이 되니까 대체로 그렇게 운영해 가는 것으로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두 개나 세 개로 위원회를 구성하시면 각 위원님들한테도 1순위, 2순위 해서 한번 의견을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표** 예,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김태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함진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표** 예.

○**함진규 위원** 죄송합니다, 두 번씩 말씀드려서.

제 생각은, 개인 생각은 지난번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사실 쇄신평위에 다선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소위를 구성하다 보니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여야 몇 명에서 사실 다 그냥 주도하다시피 해서 해 버리고 나머지 쇄신평위 위원님들은 형식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뭘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또, 대부분이 여기에서 쇄신안으로 논의되는 사항들이 각당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해 본 경험으로는 소위 몇 명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해 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관심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의에 나오지도 않으시고 그래 가지고 사실 중점적인 다섯 개 안건 중에서 핵심을 빼놓고 네 가지만 처리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처음에 여기에 의욕적으로…… 당의 추천을 받았든 본인이 원해서 오셨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그냥 유야무야 몇 개월이 끝난 것 같습니다, 4개 안건은 처리하기는 했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안 안건 상정 권한도

없다 보니까 해 가지고 운영위에 올려 보내고 그냥 갑론을박하다가 사실 끝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들 더 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여기에서 단 한 건이라도, 많은 욕심 부리지 말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 정치권에서 꼭 해야 될 것을 우선과제로 삼아서 공통으로 한 서너 건 잡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표** 서용교 위원님!

○**서용교 위원** 부산 남구울의 서용교라고 합니다.

저희들 특위 존속기한이 6개월이고 법안심사권이 없고 기본적인 한계가 많습니다, 다른 특위와 다르지 않은데. 반면에 국민의 기대나 여망 이런 것들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물을 내는 데 좀 주력을 했으면 하고요.

지금 과제심사소위원회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름은 '과제심사소위'를 우리가 의결을 했지만 과제심사에만 한정하지 말고 운영 부분도 가닥을 좀 잡아 주셨으면 하고요.

무엇보다 필요한 건 과제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제들을 정할 때 저희들 아까 전체 특위 위원 의견들도 반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전체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언론이나 국민여론을 통해서 나온 과제들 좀 잘 정리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표** 원혜영 위원님!

○**원혜영 위원** 방금 함진규 위원님 말씀 보충해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들 얘기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너무 규모나 여야 간 균형 따지지 말고 자발성 위주로 구성을 하는 방안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기왕에 구성된 과제심사소위가 여러 가지 기획조정 역할을 해주시면서, 우리 위원회가 이제 20명 미만의 위원회니까 얼마든지 타이트한 논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매주 아침 8시부터 한다든가 이런 식의 강한 규율과 참여를 전제로 해서 이 본위원회를 아주 지속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안이 아닌가 해서 지혜를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이 자문기구도요, 몇몇 저명한 정치학자나 이렇게 모셔다가 그분이 잭 오브 올 트레이즈(jack of all trades)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지 말고 그야말로 국회운영, 정당개혁, 선거제도 그런 부분에 정말 명성은 없지만, 명성보다는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우리 수석전문위원, 우리 행정실에서 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인재풀을 만들고 그런 분들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명망가 위주로 여러 가지 걸치는 분들을 자문기구로 하지 말고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인재풀을 최대한 확보해서 많은 분들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좀 동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표**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주신 말씀은 이미 그런 방향으로 여야 간사 간에 이 특위 운영, 특히 자문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과거의 특위를 보면, 다른 위원회도 그렇습니다만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저명한 학자나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일회성으로 한 번 발언하고는 그냥 그것을 모아서 대충 결론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야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또 실제 운영해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특위가 실질적인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구성도 그렇게 하고, 지금 원혜영 위원님이나 또 함진규 위원님 말씀처럼 논의만 무성하고 시간도 얼마 없는데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는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일단 작년 국회쇄신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 형태로 발의된 것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매 임시회마다 반드시 성과물을 내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소위를 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함께 다루어서 특위의 운영 방향을 어떻게 앞으로 잡을 것이냐, 그리고 소위를 두 개 내지 세 개로 나눈다고 할 때 그 소위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소위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등등을 논의하는 그런 소위원회로 첫 번째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여야 위원들께서 합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으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소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본회의가 10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소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좀 들을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소위 구성 때문에 순서를 제가 바꿨습니다마는 소위 구성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위원실에서 나누어 드린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소위원회를 열어서 소위원회가 일단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의제를 토대로, 오늘 주신 의견들을 담아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의제의 내용을 어떻게 수정한다든지 또는 그 의제 외에 다른 추가적인 것을 다룬다든지 아니면 어떤 의제는 빼다든지 하는 것들에 관해서 다음 화요일 날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 위원님들이 좀 의견 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특별히 더 위원님들 주실 말씀 있으면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회의는 산회할까 하는데, 특별히 더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박민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50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정치쇄신 과제심사 (8인)	김재원 박민식 유승우 이명수	새누리당(4)
	김관영 ◎김진표 김태년	민주통합당(3)
	심상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6인)

김관영	김상훈	김성곤	김재원
김진표	김태년	문병호	박민식
서용교	심상정	유승우	원혜영
이노근	이채익	함진규	황주홍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임재주
입법심의원	권영진